

「로스토우」史觀의 批判

——近代化問題를 中心으로——

朴 喜 範

<目 次>

I. 方法論上的 問題點

1. 「로스토우」의 立場
2. 歪曲된 民族主義觀

II. 問題의 核心

1. 跳躍의 前提條件
2. 制度的 基盤의 造成
3. 投資戰略

III. 結 論

I. 方法論上的 問題點

1. 「로스토우」의 立場

1960년에 學界에 큰 물의를 일으켰고, 그자신 그의 史觀을『反共產黨宣言』이란 副題를 붙일 만큼 自信滿滿했던 문제의 著書『經濟成長의 諸段階』(*The Stages of Economic Growth*)는 확실히 그럴만한 理論의 側面을 갖기는 했지만 全體的 테두리에서 보면 종래의 價値觀으로부터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러기에 처음에 떠들썩했던 先進學界에서도 점차 無視되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後進國에게도 한결같이 失望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었다.

그는 歷史의 潮流를 一般化하여 하나의 이론적 模型을 形成하려는 經濟史家의 方法을 近代史에 適用시켜, 소위 그가 말하는「成長의 諸段階」란 形式으로 模型化한 점은 이른바「마르크스」및 그 後繼者들에 의한 資本主義發達史나「쾨바르트」및 그 밖의 理論家들의 歷史理論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다른 經濟史家들이 한결같이 近代化, 이를테면 資本主義經濟의 發展過程을 一般化함에 있어 그 歷史的 劃一性에만 焦點을 맞춘 나머지, 經濟의 發展段階가 서로 다른 諸

經濟에 있어서의 近代化에 필요한 理論과 그 政策의 差異, 다시 말해서 歷史現象에 있어서의 各國의 個性 내지 獨自性的의 문제를 전혀 度外視한데 비해, 「로스토크」가 오히려 이 점에 焦點을 맞추었다는 것은 분명히 커다란 進歩일 뿐 아니라, 사실상 그의 理論으로 하여금 물의를 일으키게 한 根本要素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近代史를 단순히 成長의 諸段階로 보지 않고 각각 經濟的 進歩의 段階가 다른 國家들로 형성되는 「一團의 成長의 諸段階」(a set of stages-of-growth)로 파악했던 것이다.⁽¹⁾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近代化過程에 있어서의 理論과 政策原理의 時間的 相對性뿐 아니라 各經濟의 個性과 獨自性, 이를테면 空間的 相對性을 解明할 수 있었다. 그의 解明의 妥當性 與否는 우선 그만두고라도 이 점에 있어서의 그의 공헌은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그의 試圖가 없었던들 歷史理論의 劃一性에 焦點을 두어 歷史의 혹은 時間的 相對性만을 강조하는 종래의 經濟史家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을 것이고 그 著書에 붙여진 『反共產黨宣言』이란 것도 터무니없는 「넌센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종래의 經濟史家들에게는 資本主義經濟가 걸어온 歷史的 事實로서의 過去와, 先進資本主義經濟란 현재의 事實만이 존재했고, 과거의 歷史的 事實 그것도 近代史를 주름잡은 西歐資本主義發達史만이 문제시되었던 것이다. 日本을 例外로 한다면 西歐를 제외한 餘他の 後進地域은 西歐資本主義의 發展過程에서 기여한 그들의 역할로서만 認識되었지, 이들 地域의 近代化가 世界史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었고 또 고려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마르크스」學派의 產業資本主義와 獨占資本主義, 그리고 「쾨바르트」의 初期資本主義와 高度資本主義등의 概念에는 先進經濟와 後進經濟 사이에, 또한 傳統的 文化를 갖는 後進地域과 그렇지 못한 後進地域 사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近代化의 理論과 政策의 差異가 암시되지 않았다. 近代史의 主演俳優가 西歐였고 亞細亞나 그 밖의 지역은 단순한 助演者였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필요가 없었을런지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先進 資本主義와 殖民地型 資本主義, 그리고 낡은 文化의 破壞와 새로운 文化의 創造를 뜻하는 近代化와, 단순한 移植文化 즉 近代化=西歐化를 구별할 필요가 없었다. 오직 西歐를 主軸으로 하는 단 하나의 複合的 綜合體(a single complex whole)만이 존재했던 것이다.⁽²⁾

그러나 「로스토크」의 世界에는 經濟發展상의 差異가, 지나간 歷史的 事實로서의 過去와 現在라는 時系列로서만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現時點에서도 併存한다. 이리하여 歷史現

(1) W. 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 1.

(2) *Ibid.*, p. 1.

象의 一般性和 個性, 즉 多樣性を 다같이 內包하는 世界觀이 형성되고, 비로소 여기에 經濟理論과 經濟史의 統合 내지 合一의 契機를 갖게 된다. 近代史를 통해 助演者의 역할 밖에 하지 못했던 後進地域이 그들의 近代化過程에서 獨自性を 찾을 수 있는 地位를 되찾은 戰後世界에서는 종래와 같은 劃一的인 一般化한 方法으로 앞으로의 歷史現象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할지도 모른다. 成長段階의 差異와 그 個性的 差異는 近代化를 위한 理論과 政策의 多樣性, 즉 그것의 時間的 相對性和 空間的 相對性を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는 5段階說——傳統的 社會, 跳躍을 위한 先行條件充足的 段階, 跳躍段階, 成熟段階 및 高度大衆消費段階——을 提示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理論을 현대적 狀況에 보다 適應하게끔 再編成했다는 것을 빼놓고는 조금도 새로운 史眼을 展開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르크스」主義者들의 資本主義發達史 즉 封建社會, 商業資本主義, 產業資本主義, 獨占資本主義, 帝國主義의 諸段階와 對應될 수 있고, 극히 概括的으로 말해서 다만 그 差異가 「로스토우」에 있어서는 世界經濟的 聯關 내지 先·後進經濟 간에 있어서의 勢力關係가 문제의 國家의 近代化過程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무시하거나 巧妙하게 隱蔽한데 반하여, 「마르크스」主義者들은 近世史를 단 하나의 複合的 綜合體로 인식하는 나머지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한데 있을 뿐이니 말이다. 空間的 相對性의 문제에 있어서, 그의 理論은 先進資本主義의 罪惡相과 그 利害關係를 隱蔽하기 위해 意識적으로 歪曲된 痕跡이 濃厚하며 그것 때문에 後進國의 近代化 戰略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지만, 확실히 하나의 新境地를 開拓했다고 말할 수 있다. 理論의 戰略으로서의 利用可能性과 그 學問的 方法으로서의 妥當성은 엄연히 구별해야 하는 까닭에 方法論으로서의 높이가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로스토우」는 空間的 相對性을, 跳躍을 위한 先行條件充足的 段階, 즉 한 社會가 持續的 成長을 위한 준비를 갖추는 過渡期的 時代를 고찰하는데 적용하여 먼저 두가지 경우를 든다. 첫째 近代化를 가로막는 傳統的 文化를 갖는 一般的인 경우인데, 이런 나라에서는 『確固한 基盤을 갖는 傳統的 社會 内部에 있어서의 根本的인 變化, 즉 生産技術 뿐만 아니라 社會構造와 政治體制에 영향을 미치게 하며 이를 본질적으로 變革하는 諸變化』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의 거의 全地域과 「아시아」의 太半, 中國 및 「아프리카」가 이 경우에 속한다는 것이다. 둘째 傳統的 文化가 확고한 基盤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어떤 뜻에서 「天賦의 自由」(born free)가 保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物質的 環境——거칠지만 豐足한 土地와 그 밖의 天然資源의 ——이 移植된 傳統的 構造가 가지는 諸要素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經濟成長을 觸發하기에 매우 魅力的인 誘因을 제공함으로

『過渡的 過程을 促進시킨』 경우인데, 여기에는 美國 濠洲「뉴질랜드」「캐나다」 및 그 밖에 아마도 몇몇 나라가 包含되는 少數의 國家群이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는 주로 이미 過渡的 段階에 깊숙히 들어가 있었던 英國을 背景으로 해서 誕生했으며, 특히 英國에서도『動態的인 過渡的 段階의 尖端에 섰던 社會集團——대개는 非國教派——에 의해서 建設』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속하는 나라의 近代의 成長을 위한 過渡的 段階는 첫째 경우의 나라와는 달리『주로 經濟的 내지 技術的인 問題』, 즉『社會間接資本——鐵道 港灣 및 道路——의 형성과 農業 및 商業에서 製造工業에의 移行에 유리한 經濟環境의 發見』만이 필요했다는 것이다.⁽³⁾

2. 歪曲된 民族主義觀

「로스토우」는 이처럼 前提條件充足의 段階에 있는 後進國을 두개의 類型으로 나누면서 近代化를 위한 理論의 空間의 相對性을 認定한다. 그리고 또한 그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後進國의 近代化는 先進經濟에 대한 民族主義的 反撥 없이는 達成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先進資本主義의 罪過, 즉 先進經濟가 後進經濟에 미친 경제적 壓力, 특히 그들의 植民政策이 후진국 近代化를 沮害한 諸效果에 대해, 그의 著書를 통하여 한 마디도言及이 없을 뿐더러 巧妙하게 선진경제의 利害關係를 代辯한다. 바로 여기에「로스토우」의 性格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며 그의 理論의 限界가 있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近代化를 위한 先行條件充足의 段階는 다음 세가지 要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첫째 先進社會에 의한 外來侵略인데,『이 侵略行爲——文字 그대로의 경우든 表現上的의 경우든——는 傳統社會에 衝擊을 加하여 그 沒落을 開始 내지 促進시켰던 것이다. 다른 한편 그 侵略行爲는 傳統社會에 代替될 近代社會가 낳은 文化속에 誕生하게 되는 過程을 發動케 하는 觀念과 雰圍氣를 造成』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觀念과 一部 사람들에게나마 그 機會를 갖게되는 敎育은『새로운 型의 進取的인 人士들이 輩出되어——私經濟部門이든 또는 兩部門에서——貯蓄을 動員하려 하고 利潤追求 내지 近代化過程의 危險을 負擔하려』한다. 그러나 오히려 결정적인 役割은 셋째 要因인 새로운 民族主義, 즉『傳統的인 地方의 地主層이나 植民列強 또는 그 兩者에 對抗하여 새로운 民族主義에 觸發된 國民의 團合에 基盤을 둔 強力한 中央集權의 國民國家의 確立이 先行條件充足의 段階에 있어서의 決定的인 側面을 이루며, 이는 거의 예외없이 跳躍段階로의 移行을 위한 必

(3) *Ibid.*, p. 17.

(4) *Ibid.*, pp. 6—7.

須條件』이라는 것이다.⁽⁴⁾ 말하자면 그는 先行條件의 充足이 傳統社會 内部에서 自然的으로 이루어지는 內生的인 性格의 것이 아니고 英國에 있어서의 「最初の 跳躍」⁽⁵⁾을 論外로 한다면, 外來侵略이란 外生的 要因에 의하여 刺戟되어, 그 反撥로서의 후진국의 民族主義가 進取的인 人士등 合理的 經濟活動에 有利한 經濟環境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른 한편에서 이러한 「排他的 民族主義(xenophobic nationalism)」와 植民地域에서 登場한 특수한 形態의 民族主義」⁽⁶⁾ 즉 植民地型 民族主義를 區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反撥的인 民族主義——先進諸國으로부터의 侵略에 대하여 反撥을 하는——가 傳統社會에서 近代社會에로의 過渡의 社會에 있어서 가장 重要하고도 強力한, 즉 적어도 利潤動機에 못지않은 原動力이 되어 왔다』는 것을 認定하면서 두 가지 경우를 提示한다.⁽⁷⁾ 첫째로, 政治的 主權을 가진 獨立國家에 있어서의 排他的 民族主義인데, 그것이 近代化를 推進시킨 나라로서는 獨逸 「러시아」 및 日本이었고, 失敗한 것으로는 中國을 그 例로 들고 있다. 둘째로 植民地型 民族主義인데, 이들 植民地域에서도 事情은 排他的 民族主義와 마찬가지로였다고 詭辯을 弄한다. 다만 植民地型 民族主義는 二重的 誇示效果 즉 『思慮깊은 現住民들』은 『近代技術을 制御할 수 있는 能力에 수반되는 實體』를 誇示할 適切한 斷案을 내려 『종전의 民族的 紐帶나 地域的 紐帶를 超越하는 民族主義思想은 不可避하게 植民地支配에 대한 怨恨으로 結晶』되는 消極的 誇示와 『植民勢力의 撤去를 強要할 수 있을 만큼 政治的 및 때로는 軍事的 壓力』으로 나타나는 積極的 誇示로 나타난다는 것이다.⁽⁸⁾

확실히 이러한 植民地型 民族主義가 近代化에 成功한 例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 指摘한 確固한 傳統的 文化를 갖지 않은 植民地중 어떤 나라들——美 濠 加 및 「뉴질랜드」등——에서는 그것이 植民地狀態를 벗어나 近代化를 推進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로스토우」는 대담하게도 다음과 같이 主張할 수 있었다. 『비록 帝國主義列強이 반드시 跳躍段階를 위한 先行條件의 造成을 樂觀케 할 만한 政策을 追求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思想 知識 制度를 變形시키고 社會間接資本을 供給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植民社會로 하여금 過渡의 段階의 途程에 오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은 가끔 近代化를 植民政策의 公公然한 目的의 하나로 삼기도 하였다』고.⁽⁹⁾

(5) *Ibid.*, pp. 31—35.

(6) *Ibid.*, p. 28.

(7) *Ibid.*, p. 26.

(8) *Ibid.*, pp. 27—28.

(9) *Ibid.*, p. 27.

「로스토우」의 見解는 뿌리깊게 자리잡은 傳統文化가 없고, 天賦의 自由가 주어져서 外勢와 國內의 保守勢力과의 野合이 問題될 수 없고, 또한 外來侵略에 대한 反撥로서의 民族主義의 國民의 結合이 容易했던 이른바 例外的인 「少數의 國家群」에게는 妥當性을 갖는다. 남은 傳統의 文化가 확고하게 뿌리를 박고 있는 傳統社會에서의 近代化, 이른바 그 跳躍은 「社會構造와 政治體制의 本質的인 改革」을 요하는 變革이 前提條件으로 된다는 것을 「로스토우」는 빠뜨리지 않고 指摘한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的 變革은 바로 外來侵略者들에 의하여 沮止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經濟的 搾取에 알맞게 修正되고 歪曲되었던 것이다. 「로스토우」는 外來侵略者들은 植民地에서 『思想 知識 制度를 變形시키고 社會間接資本을 供給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일부 少數者에게 近代의 思想에 接近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한 것은 事實이로되 民族主義의 改革運動을 彈壓하였고, 技術에 있어서도 自然科學(醫術을 除外하고)에의 接近과 그 技術을 發揮할 수 있는 기회를 剝奪하였으며, 近代의 制度의 導入은 그들의 搾取에 便利하게끔 變形되었던 것이다. 社會間接資本의 供給도 鑛物 혹은 農產物의 蒐集과 輸出에 알맞거나, 行政 및 그들의 消費市場에 알맞는 消費都市를 建設했지 植民地 그 자체를 위한 工業團地——즉 新興工業都市——建設에 필요한 많은 量의 發電과 輸送 및 通信網의 建設은 결코 하지 않았다. 이 점은 오랜 植民地統治를 받은 「아시아」의 後進國들이 獨立하자 마자 社會間接資本의 不足을 한결같이 느끼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近代化가 늦어지고 있는 各國共通의 實情으로써 충분히 立證된다.

좀 더 實例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植民帝國은 그들 國內에서 이미 土地改革을 完了했음에도 불구하고——日本은 事情이 약간 달랐지만——植民地엔 土地에 관한 登記制度만을 導入하는 동시에 土着地主를 保護하고 이들과 野合하는가 하면, 原住民의 無知와 登記制度를 利用하여 賃값으로 土地를 收奪했으며, 半封建의 小作制度를 存續시켜 農民을 搾取했던 것이다. 日本人에 의한 韓國侵略, 英國人의 登記制度에 의한 印度 「버어마」 및 「파키스탄」地域에서의 巧妙한 土地強奪, 印度人의 高利貸와 抵當制度에 의한 「버어마」人의 收奪, 「프랑스」人이 「메콩」三角洲에서 登記制度를 병자한 土地強奪과 「통킹」地方에 있어서의 小作制度에 의한 農民收奪——아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鑛業 및 商工業에 관한 法制度導入에서도 原住民의 이들 產業에의 參與를 排除하는 諸條項의 插入——英統治下 印度에서의 代理會社制度, 日帝統治下 韓國에 있어서의 會社令과 鑛業令——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 以外에도 本國의 그것과 競合하는 工業의 植民地에 있어서의 建設을 거의 禁止하는 植民政策과 關稅制度, 그 밖의 價格政策 및 각종 差別待遇를 이용한 植民地收奪의 一般的 類型에 대해서는 列擧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¹⁰⁾

그들에 의한 知識 思想 및 制度의 近代化에 대해 「로스토우」는 『비록 帝國主義列強이 반드시 跳躍의 先行條件造成을 樂觀케 할 만한 政策을 追求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라는 條件句를 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이 條件句의 內容때문에 後進經濟는 隸屬 내지 買辦化하였다. 18世紀中葉까지 物質文明에 있어 一般的으로 東洋이 西洋에 앞섰음에도 이때문에 「아시아」는 近代化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다. 「로스토우」는 그의 著書를 통해 「隸屬」이라는 말을 그들 自身의 經濟를 分析하는 句節에서 단 한번밖에 使用하지 않고 있다.

즉

美國은 그 自身을 위해서 처음엔 「랑카셔」의 隸屬地域(an appendage to Lancashire)으로서, 또 다음엔 「뉴잉글랜드」紡織工業의 隸屬地域으로서 南部에 一種의 傳統社會를 建設했으며 그리고 南部가 그에 固有한 變動을 이룬 傳統社會로부터 지루하게도 長期에 걸쳐 離脫하여 가는 過程은 분명히 特殊한 경우 (소위 天賦의 自由가 주어진 少數國家群)에 속한다기 보다 오히려 一般的인 경우에 속한다고. ⁽¹¹⁾

殖民地統治者들에 의해서 黑人奴隸制度(傳統社會)가 확립된 南部가 『지루하게도 長期에 걸쳐』 近代化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들 자신의 경우에선 서슴지 않고 認定하면서도 다른 句節에서는 思想 技術 및 制度를 近代化함으로써 植民帝國이 植民地의 近代化를 促進시켰다는 二律背反의 矛盾을 犯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란」이 지적하듯이 그들의 植民政策은 傳統의 文化가 뿌리깊이 박혀있는 地域에서는 바로 그 傳統文化를 維持 保存함으로써 經濟적으로 原始收奪이 便利하게끔 制度를 變形하는 反面 傳統의 文化가 없는 地域에서는 產業의 構造的 移植을 통해 近代化=西歐化를 促進시켰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¹²⁾

그래도 美國의 南部地方은 같은 國境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루하게도 長期」에 걸치기는 했으나, 그리고 南北戰爭이란 強制手術을 통해서나마 近代化가 달성되었지만, 傳統의인 文化가 없어 「天賦의 自由」가 주어져 있는 地域이라고 하더라도, 一曰 植民政策에 의하여 傳統社會가 維持 保存되거나, 創造된 곳에서는, 좀처럼 經濟的 跳躍이 어렵다는 事實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오히려 近代化를 防止하고 傳統社會를 維持 強化하지 않고는 植民地 혹은 準植民地로서의 經濟的 搾取가 不可能한 까닭에, 이러한 地域에 利害關係

(10) 植民政策의 體系的 分析으로는, 矢内原忠雄, 『植民 及 植民政策』, 東京 有斐閣, 1925. 및 Erich H. Jacoby, *Agrarian Unrest in Southeast Asia*, Asia Publishing House, 1949 를 參照하기 바란다.

(11) W. W. Rostow, *op. cit.*, p. 18.

(12) P. 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New York, 1957, Ch. 1.

를 갖는 先進諸國은 傳統的인 制度를 近代의인 것으로 變形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維持하는데 土着守舊勢力과 野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런 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의 많은 新生獨立國家는 말할 것도 없고, 「라틴 아메리카」의 오늘날의 事情은 그것을 雄辯으로 說明하여 준다. 「라틴 아메리카」는 北美나 濠洲 및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天賦의 自由가 賦與된, 그야말로 西歐人에게 祝福받을 만한 地域임에 틀림 없었다. 그러나 半封建의 土地制度 및 商業資本 내지 高利貸資本主義的인 前近代의 制度에로의 變形에 의해 準殖民地의인 傳統社會가 確立된 후엔 오늘날까지 近代化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로스토투」에 의하면 본래 이런 地域은 經濟的 技術的인 問題만이 近代化를 위한 課題라 했고, 나아가 傳統的 社會라 하더라도 外來侵略에 의한 衝擊과 그 反撥로서의 民族主義가 近代化의 經濟的 素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理論에 의하면 「라틴 아메리카」가 지금까지 跳躍을 못한 理由는 발견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變態的인 傳統社會라 하더라도 民族主義的 反撥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기나긴 時間이 經過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다음과 같이 答辯을 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라틴 아메리카」諸國은 一般的인 경우(傳統社會로부터의 近代化)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보다 먼저 過度的 段階에 들어갔던 「유럽」을 뒤따라가는 多福한 後繼者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컨대 대체로 그들은 一般的인 경우에 속한다. 즉 그들은 加速度的인 成長推進力의 여러가지 祝福을 받으려면 根本的인 變化를 요했던 傳統社會의 一變型——흔히는 「라틴 유럽」과 土着의 傳統的 文化의 混合이지만——에서 出發해야 했던 것이라고. (13)

그는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1930年代 後半에 跳躍段階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한 根本的 變化가 없었던 까닭에 30年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큰 進展은 없는 것이다.

II. 問題의 核心

「로스토투」는 결국 傳統文化가 확고히 뿌리박고 있는 보다 一般的인 경우인 後進社會와 天賦의 自由가 賦與된 後進社會에 있어서의 跳躍을 위한 理論과 政策이 서로 다른 점을

(13) W.W. Rostow, *op. cit.*, p. 18.

明示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러나 先進列強의 帝國主義政策이 後進社會에 미친 影響을 輕視하거나 無視한 나머지 政治的 主體性을 維持한 後進社會와, 殖民地 혹은 先進國의 경제적 利害關係가 깊이 뿌리박고 있는 準殖民地에 있어서의 近代化理論 내지 그 政策의 差異點을 認定하지 않는데서, 그가 先進資本主義를 代辯하는 理論家임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로스토우」의 史觀은 傳統的 文化를 갖는 後進社會는 비록 그 自體內에 近代化를 沮止하는 制度的 落後性이란 內生的 要因은 가졌지만, 「바란」이 지적하듯이 帝國主義 植民列強이 이런 後進地域에 대해서는 正統적인 植民政策을 適用하여 近代化를 가로막고 天賦의 自由가 주어진 後進社會에 대해서는 西歐의 移植文化를 創造했던, 植民政策의 差異에서 오는 外生的 要因이 보다 強하게 작용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그는 그 자신 「反共產黨宣言」이란 副題를 붙일 만큼, 方法論上革新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帝國主義理論을 代辯하거나 擁護한 데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後進國學徒들에게 無視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의 理論은 先進資本主義의 利害關係를 代辯했기는 하나, 1930年代를 起點으로 하여 外延的 成長型으로부터 內包的 成長型으로 體質變化를 했고⁽¹⁴⁾ 相互需要的 原理를 뒷받침한 高所得水準 및 高次元에 있어서의 새로운 國際分業의 必要로 말미암은 貿易型的 變質(南北에서 東西)로 因하여 先進資本主義의 經濟的 利害關係가 달라진 오늘의 先進經濟에서 그의 理論이 오랫동안 關心을 끌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로스토우』는 올바른 方法論에 立脚하면서도, 그의 周邊의 利害關係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論旨를 올바르게 貫徹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先進列強의 侵略으로 인한 人間的 및 國民的 尊嚴성에 대한 屈辱이 없었더라면 지난 1世紀에 걸친 傳統社會의 近代化率は 실제로 있었던 것보다 훨씬 速度가 느렸을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고.⁽¹⁵⁾ 마치 日本의 韓國侵略을 正當化한 久保田妄言을 聯想케 한다. 이 말은 아마 그들 자신의 移植文化社會, 즉 그가 말한 「天賦의 自由」가 있었던 社會엔 適用되겠지만, 그 밖의 後進社會에 대해서는 그 反對였음을 우리는 이미 分析한 바이다. 그리고 天賦의 自由도 未開民族을 奧地로 追放한 然後의 新大陸에서만 누릴 수 있는 特權이었다. 이러한 그의 態度는 後進國近代化의 經濟的 核心問題를 分析하는 데서도

(14) A. H. Hansen, *Fiscal Policy and Business Cycles*, New York, 1941, pp. 38—39.

(15) W. W. Rostow, *op. cit.*, pp. 2, 8.

마찬가지의 過誤를 犯하고 말았다.

1. 跳躍의 前提條件

「로스토우」는 一義的으로 規定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跳躍段階에 관한 暫定的인 定義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즉

(1) 國民所得(純國民生產額 NNP)에 대한 生産的 投資率의 5% 또는 그 以下에서 10% 以上으로의 上昇

(2) 하나 혹은 그 以上の 높은 成長率을 갖는 實質的인 製造業部門의 發展

(3) 近代의 産業部門의 擴張에 대한 衝擊 및 跳躍段階의 潜在的인 外部經濟效果를 誘發하게 하며 또 成長에 自動的인 性格을 賦與하는 政治 社會 및 制度的인 基盤의 存在 혹은 그 急速한 出現.⁽¹⁶⁾

그리고 이 셋째 條件은 自國內의 資本을 動員함에 있어서의 相當한 能力을 包含한다는 假設을 붙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가지 條件은 서로 關聯을 가지며, 모두 必要로 하는 것이라고 定義한다.

그런데 第1의 條件 즉 生産的 投資率이 國民所得의 5% 혹은 그 以下에서 10% 以上으로 上昇해야 한다는 表現에 대해 「로스토우」 자신 매우 不滿足하게 생각하여 近代經濟學——특히 1950代 動態經濟學 以前의——이 導入한 集計值概念에 많은 經濟學徒들의 思考方式이 져어있기 때문에 不得已한 表現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케인즈」가 導入한 集計值에 대한 總括的 分析方法은 後進國에 관한 한 거의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두 가지 理由를 들고 있다. 첫째 『戰略的 要因들을 다루는 經濟成長分析에서는 秩序있는 個別的 考察方法이 必要 不可缺한 까닭에 短期的 所得分析의 諸目的에나 有用할지 모르는 集計值라는 것은, 그것이 成長分析에 적용될 때 문제를 解明해 준다기보다 오히려 애매하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近代의 産業構造가 育成될 수 있는 基盤의 準備는 『農業과 社會間接資本(그 중에서도 특히 交通機關)의 두가지 非工業的 産業部門에 아주 革新的인 變化의 발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¹⁷⁾ 『集計的인 國民所得의 計數는 분명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過程에 관해서 解明을 주는 바가 거의 없다』⁽¹⁸⁾고 보는 그의 見解는 옳으며, 第1의 條件인 投資率의 上昇은 『보다 基本的인 社會的 變革(第3條件)을 反映하는 한편 經濟의 變質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特定産業部門에 있어서의 發展(第2條

(16) *Ibid.*, p. 39.

(17) *Ibid.*, pp. 25—26.

(18) *Ibid.*, p. 37 & p. 46.

件)의 結果』⁽¹⁹⁾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第1條件은 經濟成長率을 人口成長率보다 높이기 위한 最少限의 生産의 投資率이라는 하나의 任意的인 成長目標을 提示할 뿐, 그 밖의 아무런 意味 內容은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스토우」에 따를 것 같으면 跳躍을 위한 前提條件은 두 개의 條件, 즉 第2條件과 第3條件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第2條件은 投資戰略에 관한 문제이며 第3條件은 政治的 社會的 및 經濟的 制度變革의 문제에 不過한 것이다. 이리하여 後進國의 近代化는 制度變革과 投資戰略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近代經濟學者들이 後進國의 近代化문제를 주로 經濟的 要因의 分析——특히 資本不足과 技術不足의 문제——에다 그 焦點을 맞추며, 또한 集計値에 의한 總括的 分析方法을 적용하는데 대해, 「로스토우」가 그 內容이야 어떻든 이러한 不毛의 方法論을 拒否한 것은 극히 適當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學的 態度를 「로스토우」의 貢獻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도브」(M. Dobb)는, 觀點은 다르지만 生産(Y)과 消費(C)의 差額만이 貯蓄(S)이고 따라서 『그 社會가 利用하고 動員할 수 있는 貯蓄基金(saving fund)이 可能的 經濟發展率을 制約하는 決定的 隘路』라고 생각하는 近代經濟學의 傳統的 分析方法 그 자체에 대해 批判的이다. 오히려 『工業化의 問題는 本質的으로는 資金의 問題가 아니라 經濟組織(economic organisation)의 問題』라고 주장한다. Y 에서 C 를 控除한 것이 S 이고 이 S 가 投資(I)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反對로 後進國에서는 過剩勞動力을 利用만 하면 Y 자체를 增加시킬 수 있는 만큼 投資量이 貯蓄量을 決定한다는 것이다. 그가 想定하는 合理的인 經濟組織이 곧 社會主義라는 獨斷에 빠지고는 있지만 近代化問題의 焦點을 經濟組織의 內容을 構成하는 經濟制度(economic institutions)의 改革에 두고 있는 점은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²⁰⁾

2. 制度的 基盤의 造成

後進國의 近代化가 궁극적으로 한편에서는 『政治 社會 및 制度的 基盤의 本質的인 改革』⁽²¹⁾을 뜻하는 變化를 꾀하는 同時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 혹은 그 以上の 높은 成長率을 갖는 實質的인 製造工業部門이 發達하고 生産的인 經濟活動의 規模가 決定的 水準에 달하여 그것이 經濟 및 社會全般에 있어서의 大規模의이고도 前進的인 構造的 轉換을 招來할 諸變化』(量的 變化라기 보다 質의 變化라고 보는 것이 좋다)⁽²²⁾를 꾀하는 投資戰略

(19) *Ibid.*, p. 21.

(20) Maurice Dobb, *Some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 Three Lectures*, 1955, pp. 26—41.

(21) Rostow, *op. cit.*, p. 17 & p. 39.

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順序에 따라 制度變革의 문제부터 具體적으로 검토할 段階에 왔다.

우리는 이미 外來侵略이 後進地域으로 하여금 그 反撥로서 民族主義思潮를 불러일으켜 中央集權的 政治體制를 확립하고 社會的 經濟的 側面에서 合理的인 制度와 雰圍氣를 造成한다는 「로스토우」의 見解에 대해 관찰하였다. 그는 民族主義의 類型을 論하고 또한 中共과 印度의 問題⁽²²⁾를 到處에서 論하면서도 이를 經濟體制問題와 關聯시키지 않을 뿐더러 매우 애매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民族主義는 社會主義나 資本主義 그 밖에 어떠한 變種과도 結付될 수 있으며 그것이 後進國近代化에 經濟的 要因 못지않게 오히려 그 보다는 더 중요한 非經濟的 要因이란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로스토우」의 民族主義觀이 문제의 核心을 回避하여 先進資本主義의 利害關係를 代辯했음은 이미 지적한 바이지만, 「로빈슨」(J. Robinson)教授가 말했듯이 그러한 民族主義觀은 1867 年の 明治維新(Meiji Restoration)에는 매우 適合하지만, 무엇보다문에 中國에서의 民族主義的 反撥이 1949 年까지 延期되지 않을 수 없었던가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로빈슨」教授는 傳統的인 人間行動의 類型(특히 宗教的)이 각기 다른 目的을 위하여 發明된 道具의 새로운 結合을 妨害하는 抵抗의 度가 약한 곳에서는 새로운 發明을 刺戟하여 産業革命을 成就케 하고, 그것이 강한 곳에서는 經濟發展을 沮止한다고 본다. 그는 「아이레스」(C. E. Ayres)의 分析을 利用하면서 西歐가 「아랍」 印度 및 中國보다 앞서게 된 理由는, 「그리스도」敎가 「이슬람」敎 「힌두」敎 및 儒敎등과 敎理上 달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다른 宗教에 比해 西歐人에게 보다 깊지 못한 關係를 가진 異邦人의 信仰이었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文明이 交流함으로써 發生할 道具의 새로운 結合(地中海文明과 배를 만드는 「바이킹」의 傳統의 結合物로서의 大洋航行船舶 및 造船은 新大陸을 發見케 하고 오늘날의 西歐文明의 土臺가 되었다)을 용이하게 한 데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論法을 『共產黨命令下의 中共의 그것과는 對照的으로 議會民主主義를 模倣한 制度下의 印度의 經濟發展이 相對的으로 遲遲不振한』事實에도 適用한다. 즉 『西歐自由主義는 겨우 印度의 傳統이란 深海의 表面만을 파스하게 했을 뿐인데 反하여 中國에서는 理念의 急激한 轉換이 技術의 急速한 變化와 그것을 利用하기에 알맞는 社會形態의 急速한 變化에 有利하게 門戶를 開放하였다』고. ⁽²⁴⁾

(22) *Ibid.*, pp. 39—40.

(23) *Ibid.*, p. 45 & p. 47.

(24) Joan Robinson, *Economic Philosophy*, Australia, 1962, pp. 103—7.

그러나 「로빈슨」教授도 「로스토우」에 대한 우리들의 批判을 冒犯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帝國主義政策이 그의 用語를 빌린다면 새로운 技術의 結合을 妨害하는 後進國의 傳統的 勢力 및 傳統的 制度를 助長하고 惡用한 事實을 度外視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日本은 확실히 例外的 存在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점은 自然資源의 貧弱과 列強의 緩衝地帶로서 帝國主義의 侵略을 冒犯한 「아시아」에 있어서의 唯一한 例로서 說明하는 「바란」教授의 見解가 보다 妥當한 것이다.⁽²⁵⁾

「로스토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後進國近代化의 非經濟的 動機를 民族主義에서 구했고, 「도보」는 經濟組織의 문제에서 구했지만, 이 문제는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막스 웨버」(Max Weber)는 清教徒精神(Protestantism)을 近代化를 촉진시킨 가장 강력한 要因(非經濟的 動機)으로 보았고, 「슌페터」(J. A. Schumpeter)는 人間의 偉大한 여러가지 欲望을 그것으로 보아 利潤極大化에 의한 致富는 그러한 欲望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手段 중의 하나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非經濟的 動機를 다루는 데 이 이상 오래 머물 수는 없다.

그러면 原點으로 돌아가서 「로스토우」의 制度變革에 대한 論議를 검토하여 보자. 먼저 社會的 價值觀의 變化에 대한 그의 見解부터 검토해 보자. 그는 사람은 社會의 近代化와 더불어 氏族의 緣故나 階級關係 또는 同業團體에 의하여 評價되지 않고, 점차 特化되어 가는 특정한 社會的 機能을 수행할 「個人的 能力」에 의하여 評價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觀念이 널리 傳播되어 人間이 자기의 周圍環境을 自然과 攝理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만일 合理的으로 理解하기만 하면, 生産的인 變化와 그리고 어떤 次元에서는 進歩를 가져오게끔 그것을 操作할 수 있는 秩序있는 世界로 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觀念은 나아가 『그 社會의 基礎科學과 應用科學에 대한 有効한 態度, 生産技術의 改革에 대한 有効한 態度, 危險負擔에 대한 有効한 態度, 勞動의 條件 및 方法에 대한 有効한 態度 등의 急速한 確立』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한다.⁽²⁶⁾

「로스토우」의 立場은 資本主義는 곧 合理主義文明이라는 「슌페터」(J. A. Schumpeter)가 代辯하는 대부분의 西歐人의 資本主義觀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²⁷⁾ 이렇게 보면 近代化는 곧 西歐化라는 見解에 逢着하고 말 것이다. 社會主義者들에 물으면 그들의 세계가 보다 高次元에 있어서의 合理主義의 具現이라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社會主義라면 非合理

(25) Baran, *op. cit.*, ch. 1.

(26) Rostow, *op. cit.*, p. 20.

(27)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1943, Chapter XI 參照.

的인 共同體의 要素를 否定할 수 없는데 그것에 의해서도 近代化가 달성될 수 있다는 事實은 아무도 否認하지 못한다. 또한 日本의 資本主義는 한쪽에 있어 半封建的 土地制度에 의한 農民의 收奪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低水準의 穀物賃金(corn wages)을 基盤으로 하여 工業의 基礎를 마련하였고, 다른 한편에서 封建的 身分關係의 傳統에서 벗어나지 못한 大企業 對 中小企業의 主從關係, 즉 大企業에 의한 中小企業의 收奪에 의해 形成・發展되었고 그것을 基盤으로 그들은 貧弱한 國內市場에 依存하지 않고 輸出工業 中心의 外延의 成長을 可能케 했던 「低廉한 日本商品」을 海外市場에 供給했던 것이다.⁽²⁸⁾ 禹王 以來로 治水와 共同體의 協同을 強要한 「아시아」의 生産樣式과 극도로 零細化한 대다수 「아시아」의 後進國은 農業의 開發에서 오히려 共同體의 形態, 예를 들면 協業農業이 아니고서는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日本에서 그 先例를 보여 주었듯이 封建的 主從關係를 계승한 中小工業의 系列化가 人口의 壓力, 生産性的 落後 및 市場의 狹小라는 經濟開發上의 諸隘路를 打開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大規模의 經濟(economies of large scale)를 얻을 수 없는 後進國의 近代化를 위해 열려져 있는 하나의 途程일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보면 後進國의 近代化는 단순한 合理化 즉 西歐化라기 보다 새로운 形態의 產業主義(industrialism)의 實現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近代化를 推進하는 人的 要素에 대해서도 「로스토우」는 널리 先進社會에서 論議되고 있는 範疇를 넘지 못한다. 그는 첫째 어느 後進社會에서나, 市場擴大와 利潤增大의 隘路를 除去하여 그들의 能力에 따라 그들의 社會的 地位를 向上시킬 수 있는 「商人」이 언제나 存在하고, 둘째 人間生活의 尊嚴性和 價値를 向上시키는 方途를 內包한 것으로 생각하는 「知性人」이 있으며, 셋째 外國支配에 대해 분개하고 戰鬪를 통한 國民의 勝利를 꿈꿀 뿐 아니라 앞장서서 近代化를 推進하는 「軍人」이 있다고 主張한다.⁽²⁹⁾

그러나 첫째로 後進國에 있어서는 商人이 技術의 革新이란 外的 衝擊만 있으면 自動적으로 工業「부르조아지」가 될 內在의 契機를 갖지 못한다. 만일 強力하고 能力이 있으며 腐敗하지 않은 中央集權의 政治가 그들의 國家利益을 保障하는 對策과 制度를 갖추지 않는 限 商人은 自主的인 工業國家가 되기 보다 買辦商人의 地位를 持續하는 것이 그들 個人的 利益을 위해 有利하다. 그렇기 때문에 近世初期 英國에서 近代化의 旗手였던 商人은 後進國의 경우 오히려 反動的 旗手로 登場하기 일쑤였다. 둘째로 知性人의 경우도 歷

(28) N. Wood, "The 'Family Firm'—Base of Japan's Growing Economy,"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 Sociology*, July 1964.

(29) Rostow, *op. cit.*, p. 28.

傭된 中産階級(employed middle class)로서의 禁斷의 과일을 탐닉할 수 있는 限 僅코 近代化의 旗手를 自處하지 않으며, 客觀的인 立場에서 國家利益을 代辯할 수 있는 知性人은 극소수로 限定된다. 前後가 矛盾된 이야기이지만, 「로스토우」自身도 獨逸의 近代化의 轉換點이었던 1848年의 3月革命을 감쪽같이 해낸 것은 西部地方의 商人이나 自由主義者(知性人)가 아니고 「옹커」와 東部人이었다는 歷史的 事實을 들고 있다.⁽³⁰⁾ 셋째로 軍人만 하더라도 國民政府下의 中國의 腐敗한 軍閥이나 革命을 하나의 職業으로 삼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壟斷集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貿易業者, 商人, 「브로커」, 그리고 官僚등 傭된 中産階級은 後進國의 近代化過程에서 그 惠澤을 가장 많이 입었으면서도 가장 적게 近代化에 寄與하는 階層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³¹⁾ 客觀的으로 國家利益을 代辯할 수 있는 地位에 있거나 傭機會에서 疎外된 不平分子로서의 軍人을 包含한 넓은 意味의 知性人이 大衆을 煽動하고 그들에게 革命의 口號와 戰術⁽³²⁾을 提供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近代化를 促進시킨다는 事實을 是認하고, 『一旦 近代國家가 成立되면 軍人은 外國에 對해 侵略的으로 되고, 職業的 政治人은 國內各地域에 對한 中央의 支配를 推進시키고, 商人은 經濟開發에 努力하며 知識人은 社會 政治 및 法律上의 改革에 努力한다』⁽³³⁾는 점을 是認하더라도 적어도 近代化初期의 過渡期에서는 그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經濟制度에 關한 「로스토우」의 論議를 檢討해 보자. 經濟制度의 變革은 工業化에 所要되는 資本調達의 問題와 直結된다. 그는 跳躍段階에 充當할 所要 「貸付資金」은, 첫째로 『所得分配上의 變化와 資本收入을 포함하는 所得의 흐름에 對한 支配力의 移動』과, 둘째로 『擴張速度가 빠른 特定產業部門에의 利潤의 再投資』에 의해서 調達되어 왔다는 것이다. 더욱 要約해서 그는 『經濟發展이 이룩되는 것은 所得을 非生産的으로 쓰는 (退藏이나 高利貸로) 사람들로부터 所得을 보다 生産的으로 쓰는 (또는 貸付하는) 사람들에 對한 所得移轉의 結果』라고 말한다.⁽³⁴⁾

所得의 흐름의 移轉은 歷史的으로 볼 때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난다. 그는 대체로 세가지 形態, 土地改革, 「인플레이션」政策등 政府의 財政的 措置와 資本市場의 育成을 통한 民間

(30) *Ibid.*, p. 27.

(31) K.E. Boulding & Pritam Singh, "The Role of the Price Structure in Economic Develop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III, May 1962.

(32) Schumpeter, *op. cit.*, pp. 145—155.

(33) Rostow, *op. cit.*, p. 29.

(34) *Ibid.*, pp. 46—47.

의 運轉資本, 그리고 長期資本의 供給増大를 들고 있지만⁽³⁵⁾ 오는 所得을 『別莊과 使用人 및 裝身具와 寺院에 보다는 道路와 鐵道, 學校와 工場에 支出하는 사람들의 手中으로』⁽³⁶⁾ 넘겨야 하며, 또한 高利貸 換投機 海外貿易 또는 不動産에가 아니라 『危險을 무릅쓰고라도 近代工業에 長期貸付』⁽³⁷⁾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土地改革의 効果는 첫째로 『國家 자체가 地主들의 手中으로부터 轉用케 된 農民들의 地代支拂金을 經濟發展을 助長하는 産業活動에 使用』(大地主의 地代支拂金에 대한 請求權을 政府證券으로 바꿈으로써)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로 『進取的인 一部 舊地主들이 직접 商工業에 投資』할 수 있는데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資本調達의 效果는 『資源을 消費部門에서 利潤造出部門으로 移動』시키는데 있다. 그리고 民間의 運轉資本을 供給하는 銀行과 長期融資를 擔當하는 中央資本市場이 形成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資本調達の 또 하나의 源泉으로서의 利潤의 再投資에 대한 「로스토우」의 見解를 보자. 첫째로 利潤의 再投資效果를 期待하기 위해서는 『企業家들(民間이건 公共機關이건)이 利潤중 극히 높은 比率을 새로운 生産의 増大를 위하여 再投資하게 될, 成長速度가 빠른 하나 혹은 그 以上の 産業部門의 存在』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둘째 再投資될 利潤의 극히 중요한 또 하나의 源泉은 外國貿易인데, 『發展하는 經濟는 그 자체의 自然資源으로부터 主要輸出産業을 일으켰고 急速한 輸出擴大는 跳躍期間中 資本施設導入을 위한 資金調達과 對外債務의 償還에 利用되어 왔다』(美, 帝政「러시아」, 「캐나다」, 「스위든」, 日本, 中共)는 것이다. 『外換收入의 増大를 退藏(印度의 地金輸入)이나 非生産的인 消費支出에 使用한』 나라들이 發達하지 못한 것은 當然한 일이다. 셋째로 再投資를 誘發시키는 하나의 可能的 方法은 『國內生産品인 消費財에 대한 有效需要의 急速한 増大』라는 것이다.⁽³⁸⁾

마지막으로 貸付資金供給의 最終的 手段은 물론 資本輸入이며, 많은 나라들의 跳躍段階에 있어 그것은 重要な 役割을 한다는 것이다.⁽³⁹⁾

「로스토우」의 制度變革에 관한 見解는 오늘날의 先進經濟의 발자취를 回顧的으로 觀察할 때 모두가 妥當하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의 後進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近代化過程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따라서 그의 接近法은 展望的 要素가 缺如되어 있으며 展望的 觀察을 缺如하는 한 그것은 오늘날의 後進國近代化

(35) *Ibid.*, pp. 46—49.

(36) *Ibid.*, p. 19.

(37) *Ibid.*, pp. 20—21.

(38) *Ibid.*, pp. 46—49.

(39) *Ibid.*, p. 49.

의 戰略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로스토우」의 制度的 基盤의 變化가 所得分配의 變化와, 所得의 흐름에 대한 支配力의 變化——즉 別莊과 使用人 裝身具와 寺院에 대한 所得의 浪費의 支出, 그리고 高利貸 換投機 海外貿易 및 不動產에 대한 非生產의 支出을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生產的 投資者에로의 支配力의 移轉——및 利潤의 生產的 再投資를 뜻하는 한 확실히 그것은 옳다. 그는 浪費의 消費를 排除하는 政策手段으로서 土地制度의 改善 즉 土地改革을 들었고, 非生產的 支出을 排除하여 生產的 產業에 대한 長·短期資本의 供給源으로서의 銀行과 資本市場에 관한 制度의 確立을 列擧하고 있다. 그리고 利潤率이 높은 하나 이상의 製造工業의 發達과 外國貿易에 의한 外換收入으로 資本財導入 혹은 外債償還이 가능하게끔 輸出產業을 育成해야 하며 再投資를 誘發하기 위해서는 國產消費財에 대한 有效需要의 增大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貸付資金의 調達策은 資本輸入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制度變革과 政策手段으로 소위 跳躍은 可能할까? 첫째로 土地改革에 대해 그는 日本과 帝政「러시아」가 地主에 대한 地價償還을 政府證券으로 代置함으로써 政府가 生產的 投資에 動員할 수 있었던 資本調達의 歷史的 本보기를 들고 있지만,⁽⁴⁰⁾ 오히려 地代銀行(Rentenbank)으로 하여금 地代狀을 發行케 하여 이를 證券市場에서 自動적으로 株式과 交換하게 했던 獨逸의 土地改革(1807)이 오늘날의 後進國이 본받을 만한 더 좋은 例일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政府證券으로 代置하는 限 政府는 언젠가 償還하기 마련인 地價를 그들이 償還받았을 때 地主가 浪費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超過需要「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外來消費財輸入때문에 外換危機에 봉착하기 쉬운 後進經濟의 發展에 「인플레이션」과 外換危機를 造成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非生產的 支出을 排除하는데 과연 銀行과 資本市場만으로 可能할까의 問題이다. 高利貸 換投機 貿易 및 不動產投資등의 暴利가 銀行利子率이나 工業利潤을 上廻하는 것이 소위 跳躍以前의 後進國의 實情이고 보면, 銀行이나 證券市場이 맥을 주지 못할 것이다. 昨今の 우리나라처럼 銀行金利를 現實化한다면 銀行으로 吸收된 資金이 또 다시 投機資金으로 需要되게 마련일 것이다. 왜냐하면 工業投資를 위해서는 너무나 利子率이 높을 것이므로 在庫投機나 換投機등 非生產的 投資 以外엔 銀行融資가 不必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金利의 現實化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投機를 助長하고 市中 高利貸金利를 떨어뜨리지 못할 것인 까닭에, 所得의 흐름에 있어서의 支配力을 非生產者로부터 生產者로 移轉시

(40) Ibid., pp. 46—47.

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商業資本主義의 原始收奪을 계속 助長하거나 陰性的 高利貸資本主義를 陽性化하는 結果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빈대를 잡기 위해 草家三間을 몰사르는 格이라기 보다 오히려 草家三間은 몰살됐지만 빈대는 이미 도망쳐 다른 草家에 寄生하고 만 格이나.

이렇게 보면 「로스토우」의 見解는 原因과 結果를 轉倒한 셈이다. 生産的 投資에서 期待되는 收益率이 高利貸나 各種投機에서 期待되는 收益率보다 높지 않고는 銀行에 吸收된 資金이 生産的으로 貸付되지 못할 뿐더러 資本市場이 발달하지 않을 터인데, 바로 그 生産的 投資을 위해서는 그 以前에 所得의 흐름에 있어서의 支配力이 非生産者로부터 生産者로 移轉되어 있어야 하니 말이다. 여기에 이를테면 所得의 흐름에 있어서의 惡循環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後進國의 경우 이 惡循環을 打開하는 길은, 流通過程에의 政府介入 이외에 달리 道理가 없는 것 같다. 外國貿易의 一部 및 原料의 都賣에서 製品의 都賣에 이르기까지 state marketing에 의하여 投機에 의한 暴利만큼을 物品稅로 政府資金化하는 一方 消費用役에 대한 稅率의 引上 및 不動產投機에 대한 資本利得稅率의 引上을 생각할 수 있다. 각종 投機와 消費用役은 暴利的 대부분이 租稅에 의하여 政府資本化하는 한 그러한 非生産的 投資은 生産的 投資만큼 有利하지 못할 것이므로 市中遊資는 銀行과 資本市場을 통해 生産資本化할 것이고, 投機에 의한 暴利가 不可能한 한 高利貸도 대부분 消滅할 것이며 農村의 長利穀 등 消費性高利貸만은 殘命을 維持할 것이다. 일단 state marketing의 制度가 確立되고 그 밖의 租稅手段이 講究되면 商品의 生産者價格과 消費者價格의 格差——輸送費 및 商人의 正常利潤(工業投資에서 期待되는 利潤보다 낮은)을 포함한 投機利潤——은 좁혀져서 物品稅에 의한 政府資本調達額이 처음 期待한 것보다 減少할런지 모른다. 왜냐하면 state marketing system이 확립되면 소위 跳躍以前的 段階에서 禁斷의 果實을 享樂하던 非生産的 舊中產層의 所得이 中農 및 近代의 中小工業者 등 生産的 中產層의 그것보다 低下할 것이기 때문에 消費財에 대한 購買力이 減少(그 대신 政府의 生産的 投資로 말미암은 投資財에 대한 購買力은 增加)할 것이므로 最終消費財價格이 下落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一時的으로는 마치 長安의 消費財의 90%가 密輸外來品이란 風聞이 돌 정도의 바로 그 密輸에 의한 각종 投機를 嚴格한 密輸防止로 除去했던 軍事革命初期의 措置로 말미암아 惹起되었던 「明洞」거리의 不景氣 그리고 預金通貨의 流通速度가 月平均 9回에서 4·5回로 半減하고 新聞에서는 『「美都波」는 파리를 날린다』는 記事들이 나돌던 當時의 事態가 再燃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事態는 政府의 生産的 投資에 의한 所得增加 때문에 一時的인

現象으로 그칠 것이고, 消費財價格은 一定한 水準에서 均衡하여 state marketing의 政府 收入도 增加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中小企業銀行이 調査한 바를 보면, 中小企業은 原料購入過程에서 여덟 段階의 中間商人 혹은 「브로커」의 손을 거쳐야 하고 製品販賣過程에서 다섯 段階의 中間商人 혹은 「브로커」의 손을 거쳐 商品이 最終需要者の 손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原料購入에서는 80%를 現金으로 購入하나 製品販賣에서는 現金이 50%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30日 혹은 90日의 延手票를 받는다는 것이다. 韓國銀行이 調査한 바를 보면 流通過程에서 商人 혹은 「브로커」들이 얻는 利潤의 「마아진」이 商品價格의 30%나 된다는 것이다.⁽⁴¹⁾ 그러나 韓國銀行調査의 그것은 原料購入過程에 있어서의 換投機 및 在庫投機를 생각하면 商業資本에 의한 原始收奪은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利潤의 生産的 再投資는 어떠한가? 이 문제에 관해 「로스토우」는 19世紀的 國際分業의 亡靈에 사로잡혀 있다. 利潤의 生産的 再投資條件으로서 그는 하나 이상의 높은 利潤率을 갖는 本質的 製造工業의 存在와, 資本財導入이 可能할 만큼 발달한 外國貿易(例 日本의 生絲, 美加露의 穀物, 「스위든」의 木材等) 및 國產消費財에 대한 有効需要의 増大를 들고 있다.

國產消費財에 대한 有効需要의 増大는 위의 두 條件이 갖추어져서 國民所得이 增加하면 可能하기 때문에 문제삼을 必要가 없지만, 그가 列擧한 하나 이상의 高利潤製造工業은 대체로 두 個의 類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단순한 國內需要充足이 目的이 아니었던 英國의 綿織業, 日本의 製絲工業, 「스위든」의 「펠프」工業, 「덴마크」의 肉類 및 酪農業을 土臺로 한 食料品加工業等 이를테면 代表的 輸出工業을 들 수 있고. 둘째 美國「프랑스」獨逸「캐나다」 및 「러시아」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이는 「스위든」日本 및 餘他の 國家들은 鐵道敷設 아니면 軍隊의 近代化가 跳躍段階에 있어 先導部門의 役割을 遂行했다.⁽⁴²⁾ 鐵道와 軍隊의 增強은 近代的인 石炭 鐵 및 機關工業의 發展을 誘發하여 基礎的인 近代工業部門의 成長을 可能케 했다는 것이다. 특히 日本 獨逸「러시아」 및 中共은 軍隊가 重大한 役割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跳躍을 위한 하나 이상의 本質的 製造工業의 類型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는 跳躍段階의 經濟成長模型을 역시 두 個의 基本的 類型, 즉 外延的(外向的) 成長型(英國, 「덴마크」, 「스위든」等)과 內包的(內向的)

(41) 『서울經濟新聞』 1965年 1月 16日字 및 2月 2日字 參照.

(42) Rostow, *op. cit.*, pp. 55—57.

成長型(美國, 「프랑스」, 獨逸, 「캐나다」, 「러시아」, 中共등)과 하나의 折衷型(日本, 「스위스」)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留意할 일은 英國과 같은 先進國이나 「스위든」 「스위스」 및 「덴마크」와 같이 特殊한 自然的 人爲的條件을 具備한 群少國은 처음부터 그들의 國際的 優位를 利用한 輸出工業을 中心으로 外延的(外向的) 工業化가 可能했던 反面에, 後進國의 대부분은 鐵道와 軍隊增強등에 刺戟된 金屬工業과 機械工業 그 밖에 基礎的 化學工業등 生産財工業 中心의 內包的(內向的) 工業化를 達成한 후에 새로운 高次元에서 主要輸出産業을 發展시켰다는 事實이다. 日本 역시 그의 脆弱한 工業基盤을 第1次大戰을 前後하여 重工業을 建設함으로써 完成한 사실을 아울러 생각한다면, 生絲만에 依存한 靜態的 國際分業에 安息處를 구하면서 오늘을 이룩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結論지을 수 있을 것이다. 先進經濟는 現在의 靜態的 國際分業을 持續시킴으로써 成長이 可能하지만 後進經濟는 特殊與件을 갖추지 못하는 限 오히려 현재의 靜態的 國際分業을 排擊하여 우선 內包的 工業化를 達成하지 않고는 더욱 高次元의 經濟發展을 期待할 수 없다고. 「로스토우」는 漠然히 利潤의 再投資를 위해서는 成長速度가 빠르고 利潤率이 높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工業部門의 存在』가 필요하지만, 後進國의 경우 그것은 靜態的 國際分業에 의하여 自動적으로 發生하는 것이 아니고 內包的 工業化를 위한 人爲的인 保護政策에 의하여 創造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國內工業의 保護에 의해서 높은 利潤率을 保障하고 內包的 工業化計畫에 의하여 國內에서 市場을 創造하는 生産財工業優先의 工業化,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貨幣所得이 創造하는 有効需要가 國內消費財의 大量需要를 招來케 함으로써 終局的으로는 生産財工業 對 消費財工業의 均衡을 促進시킨 것이었다.

「로스토우」는 濠洲,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마도 現代「터어키」⁽⁴³⁾처럼 消費財의 輸入代替産業도 先導産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나 확실히 濠洲는 特殊與件을 갖춘 「케이스」이며, 「아르헨티나」와 「터어키」가 그것으로 近代化를 達成했다고 보는 것은 疑問의 餘地가 많다. 도대체 生産財工業이나 壓倒的으로 特화된 輸出工業 없는 消費財代替産業은 그 자신이 英國의 綿織工業을 論하는 가운데서 指摘⁽⁴⁴⁾했듯이 先導産業이 될 수 없었다. 「터어키」나 우리나라는 現在 消費財의 國內代替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첫째 그러한 消費財産業이나 社會間接資本建設을 위해 導入된 外資의 利潤 혹은 利子償還額만 해도 「터어키」의

(43) *Ibid.*, p. 57.

(44) *Ibid.*, pp. 54—55.

경우 總輸出額의 50%에 到達할 정도로 外換事情을 緊迫하게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거기다 이들 消費財產業의 原料輸入이 慢性的인 國際收支의 赤字를 示顯케 하고 있어 經濟的 隸屬性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둘째 金屬工業과 機械工業 및 基礎化學工業이 없는 한 비록 消費財의 國內代替가 可能하더라도 漸進的인 生産財工業의 發達이라는 소위 「허쉬만」의 後方的 連鎖效果를 期待할 수 없기 때문에, 雇傭이나 貨幣所得(有効需要)의 增加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消費財產業 그 자체도 一定한 限界點에 到達하면 少數의 企業으로 寡占이 形成되어 所得分配의 不均等 나아가 都市와 農村의 二重社會를 形成하는 危險을 마련할 뿐이다.

끝으로 「로스토우」가 貸付資金供給의 마지막 手段으로 드는 資本輸入의 問題이다. 外國 資本은 美國 「러시아」 「스위든」 「캐나다」 등이 그 예이지만 『많은 나라들의 跳躍段階에서 중요한 役割을 하여왔다』고 그는 주장한다.⁽⁴⁵⁾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內包的 工業化努力에 의하여 主導權을 가지고 使用한 後進國에서는 그의 말처럼 많은 役割을 했지만, 內包的 工業化努力 없이 先進國의 利害關係에 追從하여 無計畫的으로 받아들인 後進地域에서는 經濟的 隸屬을 結果했을 뿐이었다. 「로스토우」는 『보다 더 基本的인 制度的 社會的 및 政治的인 前提條件』이 마련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아주 착실한 鐵道敷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跳躍을 일으키지는 못했다』고 주장하여 그 예로서 印度, 中國, 1895年前的 「캐나다」, 1914年前的 「아르헨티나」를 들고 있다. 아마 우리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고쳐 解釋해야 할 것 같다. 즉 그러한 前提條件, 특히 政治的 主體性을 缺如했기 때문에 自主的인 內包的 工業化努力이 不可能했고, 그것이 不可能했기 때문에 鐵道を 建設하면서도 金屬工業과 機械工業을 그 자체內에서 建設하지 못하고 오로지 外資에만 依存하면서 鐵道を 建設했기 때문에 先進資本에 收奪탄을 당했다고. 그러함에도 이러한 失敗의 前轍을 自進해서 밝고 있는 後進國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⁴⁶⁾

우리가 當面한 問題는 그만두고라도 主體意識없는 後進地域에서 導入된 外資가 어떠한 效果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자. 아마 「로스토우」가 美國과 利害關係가 가장 깊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美國資本의 役割을 솔직히 認定했다면, 『많은 나라들에서 外國資本이 重要的 役割을 했다』고 거리낌없이 放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地域에서는 1959—61 年 期間에 있어 모든 種類의 外國資本流入額이 96 億弗에 달했지만, 同期間에 外國으로의 送金額(外資에 대한 利潤과 利子)이 134 億弗이고, 交易條件의 惡化로 因하여 이 地域이 損

(45) *Ibid.*, p. 49.

(46) *Ibid.*, pp. 55—56.

害本 額數가 101 億弗에 달하고 있다.⁽⁴⁷⁾ 이처럼 많은 資本이 들어갔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事情은 좀처럼 好轉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年間 그들의 國民所得의 약 20%에 該當하는 額의 海外送金(外資에 대한 利子와 利潤)이 강요되며 이 額數에 못지않게 不利한 交易條件을 甘受하고 있다. 交易條件의 不利는 原始商品特有의 價格現象이기도 하지만, 鑛業 및 特用作物栽培에 직접 投資된 外資의 價格操作에도 크게 起因한다고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外資가 跳躍段階에서 「로스토우」가 말하는 것 처럼 『중요한 役割』을 하자면 問題의 後進國의 主體意識과 長期的인 眼目에서 짜여진 內包的 工業化計畫이 서 있어야 한다고 結論지을 수 있을 것이다.

3. 投資戰略

「로스토우」는 後進國近代化는 量的인 것이라기 보다 質的 變化이고 產業의 構造的 變化인 까닭에, 集計値에 의한 分析은 아무 것도 解明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함에 있어, 그는 方法論上 偉大한 貢獻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經濟의 全般的인 成長率은 무엇보다도 그 經濟內의 特定產業部門間에 있어서의 相異한 成長率에서 歸結⁽⁴⁸⁾되는 것으로 보아, 動態的 成長過程에서 役割하는 各產業의 機能을 基準으로 一國의 產業構成을 分類하여 無意味한 集計値에 의하여 事後的으로 단순히 經濟의 業績을 量的으로 把握하기에 알맞으며, 近代經濟學者들에 의하여 흔히 使用되는 「콜린 클라크」의 產業分類法을 排斥한 것도 극히 옳은 일이었다.

「클라크」의 그것은 過去의 歷史的 事實을 概括적으로 分析하는데는 便利하지만, 跳躍의 動態過程에서 各產業部門의 役割을 具體적으로 說明하지 못한다. 「클라크」나 「호프만」의 그것은 기껏해야 工業化가 進展함에 따라 第1次產業에 비해 第2次產業과 第3次產業이 어떠한 比重으로 變化한다는 따위의 說明 밖에 할 수 없었다. 近代化가 대부분의 경우 工業化를 隨伴한다면 工業 즉 第2次產業중 製造工業內部에서 具體적으로 어떠한 變化가 일어나며, 어떠한 成長上의 先後關係가 일어나는가라는 動態過程을 說明하지 못한다. 물론 「호프만」은 生産財產業 對 消費財產業의 比重을 문제삼는다. 그러나 그것도 事後的인 測定値이지 각각 다른 諸產業의 機能을 解明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로스토우」는 動態過程에 있어서의 經濟的 機能을 基準으로 諸產業을 分類하여 그대로 그것을 跳躍을 위한 投資戰略의 範圍로 끌어들임으로써 後進國의 經濟開發理論에 커다란 進展을 보

(47)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Prebisch Report), U.N., 1964, p. 19.

(48) Rostow, *op. cit.*, p. 52.

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戰略的 基準에 立脚하여 다음과 같이 一國의 産業을 分類하는데, 본래 그것은 그의 著書『經濟成長의 諸段階』에 앞선 一論文에서 밝혀졌던 것이다.⁽⁴⁹⁾

① 始發的 成長部門(primary growth sectors) : 革新의 可能性이라든가, 새로이 有用하게 되거나 지금껏 開發되지 아니한 資源의 利用可能性이, 높은 成長率을 낳고 그 經濟內의 다른 部門에 膨脹力을 喚起하는 産業部門을 말한다.

② 補完的 成長部門(supplementary growth sectors) : 始發的 諸成長部門의 發達에 直接的으로 反應해서——또는 그 必要條件으로서——急速한 發展을 이룩하게 되는 産業部門을 말하며, 예를 들면 鐵道事業과의 關係에서 본 石炭 鐵 및 土木事業이 그것이다. 이러한 産業部門의 性格을 究明하자면 過去의 여러 段階에까지 遡及해서 追跡되지 않으면 안될런지도 모른다.

③ 派生的 成長部門(derived growth sectors) : 總實質所得 人口 工業生産의 成長 혹은 그 밖의 꾸준히 增加하는 一般的 變數와의 어떠한 堅實한 關聯下에서 進步가 이룩되는 産業部門을 말한다. 人口와의 關係에 있어서의 食糧生産高와 家族構成과의 關係에 있어서의 住宅建築은 이러한 關係로부터 誘導된 古典的 事例이다.

그리고 跳躍段階에 있어서는『始發的 및 補完的 成長部門의 發動契機는 本質적으로 費用=供給條件에 있어서의 變動의 導入과 그 波及에 緣由해서 誘發되는데 反하여 派生的 成長部門은 本質적으로 需要的 變動(需要條件)과 關聯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어도 過去의 歷史的 事實에 관한 限 옳은 判斷이다. 뿐만 아니라『始發的 成長部門의 擴張은 중요한 外部經濟效果와 餘他的 副次的 效果』를 가진다는 점에서「싱거」教授가 말하는 戰略的 産業部門인 동시에 跳躍을 위한 先導的 部門(leading sectors)이라고 보는 점도 확실히 劃期的인 見解임에 틀림없었다.⁽⁵⁰⁾

이러한 戰略的 産業分類法은 그대로 後進國의 動態的 成長過程에 있어서의 戰略的 指針으로 利用될 수 있다. 즉 먼저 始發的 成長部門에 投資를 集中하여, 그 外部經濟效果를 기다려 登場할 補完的 成長部門을 育成하고, 이들 두 部門의 擴大로 말미암아 創造되는 雇傭增大에 刺戟되어 自動적으로 派生的 成長部門이 擴大되게끔 誘導하면 된다.

그러나「로스토크」는 이처럼 올바른 立脚點에 서 있으면서도 역시 重大한 誤謬를犯하고

(49) W. W. Rostow, "Trends i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in *Secular Growth*, (ed. by Leo H. Dupriez), 1955.

(50)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pp. 52—53.

있다. 여기서도 그는 事象을 回顧의으로만 判斷했지 展望의으로 叙述하지 못했으며, 先進經濟의 利害關係와 靜態的 國際分業만 尊重했지 後進國의 工業化 그 자체의 利害關係를 意識의으로 迴避했던 것이다. 後進國의 工業化는 수많은 斥候兵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찾아내어 소위 革新(innovation)을 誘發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先進經濟가 開拓한 革新을 移植하고 模倣(immitation)하고 適應(adaptation)시키는 過程이며, 따라서 始發的 成長部門은 後進國의 경우 政府에 의하여 計畫的으로 選定된 戰略的 產業部門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現在의 靜態的 國際分業에 의한 採算上의 考慮 즉 「높은 利潤率」에 의하여 選定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次元으로의 發展을 꾀하는 動態的 分業과, 現在의 經濟的 隸屬에서 脫皮하려는 自主的 經濟基盤을 構築하기 위해 選定되는 戰略的 產業部門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로스토우」의 始發的 成長部門이란 개념은 「싱거」의 戰略的 產業(strategic industries)과 代置되어야 할 것이다.⁽⁵¹⁾

만일 「로스토우」의 諸概念을 利用하려면, 先進技術의 移植 혹은 適應과 經濟的 自立을 위해 戰略的으로 選定된 主要成長部門(major growth sectors)과 그 外部經濟效果에 의해 誘發되거나 育成되어야 할 補完的 成長部門으로 分類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價格機構의 機能에 放任해서 自動的으로 決定되는 「높은 利潤率」의 產業에 民間의 投資를 放任하고 보면, 현재의 靜態的 國際分業으로부터 영원히 脫皮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登場한 事業이 그가 말하는, 즉 跳躍의 根源이 되는 始發的 成長部門의 役割을 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미 論述한 바와 같이 대체로 先進을 달렸던 英國이나 그 밖의 特殊條件을 가진 「스위스」「덴마크」 그리고 部分的으로는 「스위든」과 日本 등 外延的 成長型의 나라들은 확실히 「로스토우」의 始發的 成長部門에 의하여 工業化가 達成되었다. 그러나 소위 當時의 後進國들은 주로 鐵道 및 軍隊의 增強과 關聯된 重工業을 戰略的으로 選定한 主要成長部門으로 해서 工業化를 달성한 內包的 成長型에 屬한다. 合成原料의 發明과 後進國에 대한 原料依存을 脫皮하려는 先進國產業의 多角化로 말미암아 先·後進國間의 소위 南北貿易이 世界貿易의 21%(1962年)으로 減少했고, 1928—50年間에 있어 石油과 고무를 除外한 「아시아」地域의 輸出고가 총체적으로 25%(ECAFE 統計)나 減少한 傾向으로 미루어 보아, 오늘날의 後進國은 더욱 內包的 工業化를 強要당하고 있다. 이런 見地에서 보면 後進國이 戰略的으로 選定해야 할 主要成長部門은 바로 內包的 成長型的 것이 아니어서는 안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로스토우」는 初期의 成長過程에서의 農業과 採取產業의 重要性을 強調하는 점 에서 역시 問題의 核心을 올바르게 把握하고 있다. 이 점은 「리카도」에서提起된 動態論

의 核心이기도 하였고 「도브」에 의하여 더욱 명백히 叙述된 論議이기도 하다.⁽⁵²⁾

「로스토우」에 의하면 『過渡期的 成長段階의 一般的 要件은 빨리 나타나는 生産力變動을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한편 본래부터 生産的으로 되어 있는 資源에 適用하는 일』인데, 一般的으로 그것은 食糧生産에 있어서의 生産力 向上을 의미하나, 때로는 「뉴질랜드」 美國南部 및 日本처럼 羊毛 棉 生絲일 수도 있고 「스위든」의 木材 馬來의 生 고무 中東의 石油 美國의 一部地域과 濠洲 및 「알라스카」처럼 金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農業은 資源供給(食糧과 原料)이나 有効需要(消費財과 農機具 및 化學肥料에 대한) 또는 租稅收入面에서의 機能의외에도 土地改革에 의하여 『土地所有에서 發生되는 剩餘所得은 어쨌든 그것을 방탕한 生活에 浪費하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近代産業에 投資하고 그 후에 產出高와 生産力이 上昇함에 따라 規則적으로 利潤을 얻는 生産的인 사람들에게로 옮겨 짐』으로써 內資를 調達할 수 있는 利點을 暗示한다.⁽⁵³⁾

內包的 工業化가 強要되는 오늘날의 後進國은 農業의 重要性이 더욱 強調되어야 하지만, 工業化를 위해 農業으로부터 보다 많은 資源을 動員하는 일은 「로스토우」나 「넉시」가 말하는 것 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⁵⁴⁾ 이 점에 관한 論議는 「도브」에게 맡겨두는 것이 보다 効率的일 것 같다.

III. 結 論

「로스토우」는 近代經濟史家들의 傳統的인 方法論이었던 劃一的인 一般化를 排擊하고 歷史現象의 獨自性을 包括함으로써, 後進國近代化에서 다룰 수 있는 理論과 政策의 原理를 解明하는 실마리를 주었다. 그리고 그의 理論의 核心을 利潤動機보다 더욱 강한 民族主義에서 구한 것도 옳은 일이었다. 그러나 先進資本主義的 利害關係의 捕虜가 된 나머지 歪曲될 때로 歪曲된 그의 民族主義觀은 事象의 올바른 判斷을 不可能하게 하였다. 「로빈슨」教授에 의하여 『工業化가 國民의 屈辱에 대한 反撥로 시작된다는 理論으로 市場(學界의 名聲)을 開拓하기 위해 勇敢한 入札(bold bid)을 敢行』⁽⁵⁵⁾ 했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기는 하나, 오히려 問題의 核心은 民族主義의 役割 그 자체가 아니라, 「로스토우」의 그릇된 民族主義觀이었다.

(51) Hans Singer, *The Concept of Balanced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ory and Facts*, pp. 4-6.

(52) Dobb, *op. cit.*, p. 37.

(53)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pp. 21-24.

(54)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5.

(55) Robinson, *op. cit.*, p. 103.

「로스토우」는 天賦의 自由가 保障된 新開地에 있어서의 排他的 民族主義와, 外勢와 國內保守勢力의 野合으로 正常的인 發展을 보지 못한 植民地型 民族主義를 의식적으로 區別하기를 廻避했기 때문에, 後進國의 經濟的 近代化 즉 工業化문제 를 다루는데서도 重大한 過誤를 犯한다. 그는 近代의 歷史現象의 獨自性을 다만 두 가지에 限하여 認定할 따름이다. 傳統의 文化가 뿌리깊은 基盤을 갖는 보다 一般的인 傳統의 社會와 天賦의 自由가 賦與된 新開地인 少數의 國家群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의 서로 다른 近代化 理論을 提示했다. 즉 前者에 있어서는 政治的 社會的 및 制度的 變革이 필요하며, 後者에 있어서는 다만 經濟的 技術的 問題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스토우」가 아무 偏見없이 그의 歷史現象의 一般性和 아울러 獨自性을 展開했더라면, 아마도 네 가지 경우로 分類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固有의 文化를 갖는 傳統社會라 하더라도 政治的 經濟的 自立性 내지 主體意識을 가진 後進社會(例, 獨 佛 日 등)와, 그렇지 않고 國際的인 政治・經濟的 勢力關係에서 自主性을 喪失한 後進社會(例, 印度와 過去의 中國 및 대부분의 「아시아」의 國家들)를 分類해야 했고, 또한 新開地라 하더라도 西歐의 近代文化를 그대로 移植한 나라들(例, 美 濠 「캐나다」 및 「뉴질랜드」 등)과 새로운 形態의 傳統의 文化의 創造를 강요당했던 나라들(例, 「라틴 아메리카」諸國)로 分類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先進經濟의 利害關係를 代辯하기 위해 歪曲되었던 그의 歷史現象에 대한 偏見은 감히 이러한 分類를 감행할 수 없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工業化는 國民的 屈辱(national humiliation)으로써 시작된다』는 그의 理論의 核心은 네 가지 경우 중 첫째와 셋째의 경우에 서만 妥當性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로빈슨」教授의 「비웃음」을 사서 마땅하다. 그가 만일 네 가지 경우를 想定하여 理論을 展開했더라면, 확실히 그 結論은 달라졌을 것이고, 오늘날 「아시아」의 後進性和 「라틴 아메리카」의 經濟的 後進性的 根本原因을 새로운 角度에서 파헤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先進國의 現在의 利害關係와 過去의 罪惡狀을 掩蔽하려는 歪曲된 歷史觀을 버려야 했고, 따라서 外來侵略이 없었던들 後進國의 近代化率은 훨씬 늦었을 것이라는 따위의 詭辯을 쫓아내야 했을 것이다.

뿌리깊은 傳統의 文化를 갖는 社會를 위한 跳躍理論에서도 그의 態度는 마찬가지이다. 확실히 그는 政治的 社會的 및 制度的 變革의 必要性을 認定하고는 있다. 그러나 變革의 制止 내지 遲延의 原因을 오직 後進國의 傳統의 社會 그 자체의 內生的 要因에만 돌리려는 그의 態度는 「부케」나 「퍼니발」의 二重社會 혹은 複合社會論을 聯想케 한다. 사실인 즉

바로 그러한 變革을 가로막는 것이 植民諸國의 爲政者였고 비록 近代의 制度를 導入하더라도 그들의 經濟的 搾取에 알맞게끔 修正되었다는 儼然한 歷史的 事實을 보지 않으려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기서 또 하나의 方法論上 誤謬을犯하고 있다. 즉 그의 制度變革論은 展望의 接近法이 缺如된 回顧的 敘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過去의 歷史的 史實을 說明하는데는 妥當하나, 오늘날의 後進國의 政策指針이 되지는 못한다. 그는『所得分配上의 變化, 資本輸入을 포함하는 所得의 흐름에 대한 支配力의 移動 및 擴張速度가 빠른 特定產業部門에의 利潤의 再投資』가 可能하게끔 制度를 變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위한 政策手段으로서 土地改革, 銀行 및 資本市場의 育成 그리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높은 利潤率의 本質的 製造工業의 出現을 例舉한다. 확실히 過去의 歷史的 事實은 그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土地改革은 물론 換投機 在庫投資 高利貸 不動產投資등을 일삼는 非生産者들로부터 生産者들의 手中으로 所得의 흐름에 대한 支配力을 移轉시키자면, 政府에 의한 流通過程에의 介入, 즉 state marketing 이 必要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本質的 製造工業의 出現을 國際分業의 推移에 맡길 것이 아니라, 內包的 工業化計畫에 의하여 政策의 創造해야 할 것이다. 그는 印度에 대한 中共의 長點을 發見하고 있으면서도 오늘의 狀況에 適合한 合理的 政策手段을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過渡期的 段階에 있어서의 農業의 重要性을 인정하고 農業과 工業의 關係에 대해 올바른 把握을 하고 있으며, 특히 成長上의 戰略을 基準으로 產業을 分類하여, 近代 經濟學者들의 共通의 難點인 無意味하기 짝이 없는 集計値에 의한 不毛의 總括的 分析方法을 排斥한 점에서 커다란 進步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農業으로부터의 投資資源의 調達에 대해 그는 「넉시」처럼 安易한 思考方式에 젖어있다. 또한 그의 始發的 成長部門, 補完的 成長部門(및 派生的 成長部門)에 대한 概念規定이다, 그 戰略的 武器로서의 利用可能性은 內包的 工業化計畫과 動態的 國際分業이란 보다 높은 次元에서 修正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점은 事實上 19世紀의 後進國에서도 마찬가지로 該當된다.

결국 「로스토크」는 올바른 方法論에 立脚하면서도 그의 歪曲된 偏見때문에 최초의 그의 意圖였던 「反共產黨宣言」의 役割을 充分히 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겸손하게『集産主義를 회피할 수 있는 唯一한 道』를 論하면서도 결코 副題로 거창하게 「反集産主義宣言」이란 看板을 내걸지 않았던 「해로드」의『動態經濟學序說』⁽⁵⁶⁾이 더 큰 效果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筆者 [서울대학교 商科大学]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所長
서울대학교 商科大学 教授

(56) R. Harrod, *Towards a Dynamic Economics*, 1950, p. 147.

<Summary>

A Critique to Rostow's View of History

Hee-Bum Park*

I. Problems in Methodology

1. Rostow's Point of View

Rostow's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theories of history of the other authors such as Marx or Sombart in generalizing the trend of history, moulding a theoretical model and applying it to the modern history. But other historians, in generaliz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capitalism, disregarded the difference in theory and policy between various economies, that is, the peculiarity and originality of each country. While, Rostow understood the modern history, not as simply "the stages of growth" but "a set of stages-of-growth" consisted of various countries lying in various stages of economic progress. Thus he could make clear not only the historical relativity of theory and policy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but the peculiarity and originality, say, the spatial relativity. Set aside the validity of his explanation, it is highly appreciated that he contributed much to the methodology of history in this respect.

Rostow, applying the spatial relativity to the consideration of the stage of preconditions for the take-off, that is, "the transitional era when a society prepares itself for sustained growth," distinguished into two cases. One is what might be called the general case in which the traditional culture hindering modernization exists. Therefore in this case the creation of the preconditions for take-off requires "fundamental changes which touched and substantially altered the social structure and political system as well as techniques of production." This case covers most of Europe, the greater part of Asia and Africa.

* The author is professor of economics,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research member and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ther comprises those nations who have not traditional culture but, in a sense, being 'born free', and hence "physical settings—of wild but abundant land and other natural resources—discouraged the maintenance of such elements in the traditional structure as were transplanted, and accelerated the transitional process by offering extremely attractive incentives to get on with economic growth." This case covers a small group of nation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etc.

2. Distorted View of Nationalism

Rostow, without any touch on the economic pressure of the advanced economy exerted on backward economy, especially on the various effects of colonial powers hindering the modernization of underdeveloped economy, sophisticates for the interests of advanced economy. We need to examine these in two ways.

Firstly, he presents the following three factors concerning the stages of pre-conditions for modernization: some external intrusion by more advanced societies which not only shocked the traditional society and began or hastened its undoing, but set in motion ideas and sentiments which initiated the process by which a moder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society was constructed out of the old culture; these ideas and opportunity for education, for some at least, which makes new types of enterprising men come forward, who are willing to mobilize savings and to take risks in pursuit of profit or modernization; a new nationalism which, in opposition to the traditional landed regional interests, the colonial power, or both, was a decisive aspect of the preconditions period and almost universally a necessary condition for take-off.

Secondly, he, admitting the historical fact that a reactive nationalism has been a most important and powerful motive force in the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to modern societies, at least as important as the profit motive, distinguished the xenophobic nationalism from the peculiar form of it which developed in colonial areas. First, he says, xenophobic nationalism of an independent state has led to modernization in some nations such as Germany, Japan and post-1861

Russia, but in some other nations as in case of China failed in modernization. Second, about the nationalism peculiar to colonial areas, he, also assumed the same circumstances as the xenophobic nationalism, insisting that although imperial powers pursued policies which did not always optimize the development of the precondition for take-off, they could not avoid bringing about transformation in thought, knowledge, institutions and the supply of social overhead capital which moved the colonial society along the transitional path; and they often included a sort of modernization as one explicit object of colonial policy.

The above-mentioned Rostow's view is valid in those small group of nations in which, without deep-rooted traditional culture, being 'born free,' the coalition between colonial powers and native-conservative powers cannot be a question and the solidarity between various nationalistic groups of a nation as a reaction to foreign intrusive powers is easy. He also pointed out correctly that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societies, with deep-rooted old traditional culture, requires changes which substantially alter the political, soci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s well as techniques of production. But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s, these social changes was hindered, or modified and distorted into convenient form for their exploitation by foreign invaders themselves. Although, as he says, it is reality that foreign invaders brought about transformation in thought, knowledge, institutions and the supply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endowed the minorities with opportunities of access to modern knowledge, it cannot be denied that they suppressed nationalistic revolutionary movement, deprived natives of opportunities of access and exhibition to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except medical science), and transformed modern institutions into convenient form to their exploitation. The supply of social overhead capital also has been so far as it is adequate for collection and exportation of agricultural and mineral products; consuming or administrative cities were constructed for their commodity market or colonial domination; but electric power,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necessary for any industrial development of colonial areas has not been constructed at all. All these may be evident

from the fact that after long colonial domination, many Asian underdeveloped nations feel, nearly without exceptions, the shortage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this, in turn, hinders their modernization itself.

In conclusion, as P. Baran pointed out, it may be valid that colonial policies of more advanced economy has transformed institutions of colonial areas into appropriate for their economic primitive exploitation by maintaining and preserving well the traditional culture itself those areas with deep-rooted traditional culture; while in those areas without old culture, accelerated westernization by the structural transplanting of their own industries.

II. The Core of the Problem

Thus Rostow succeeded in making it clear that the theory and policy for take-off is different between two types of backward society; those which might be called the general case with deep-rooted traditional culture, and those which are endowed with 'born free.' But he thought little of, or disregarded the influences of imperial policy of advanced powers upon backward societies, and hence did not admit the differences in the theory and policy for modernization between backward societies maintaining political independence, and colonies or quasi-colonies where the economic interests of advanced society has deep-rooted. In this respect we need not hesitate to point out that he is no more than a theorist speaking for the advanced capitalism.

1. Preconditions for Take-Off

Rostow defined tentatively the preconditions for take-off as follow:

- (1) "a rise in the rate of productive investment from, say, 5 % or less to over 10% of national income (or net national product)";
- (2) "the development of one or more substantial manufacturing sectors, with a high rate of growth";
- (3) "the existence or quick emergence of a political, soci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exploits the impulses to expansion the modern sector and the

potential external economy effects of the take-off and gives to growth an on-going character.” Among these, the first condition, the rise in the rate of investment is the consequence of developments in particular sectors of the economy whe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actually takes place (the second condition) as well as reflecting more profound social changes (the third condition). Accordingly the first condition only implies an optional aim of growth necessary for investment-rate up to the point where the increase in output outstrips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and nothing else. Thus Rostow’s preconditions for take-off is summarized in two, that is, the second condition and the third. Then the second is concerned with the strategies of investment, and the third changes i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stitutions.

In this way modernization of backward economies may be divided into the problems of the strategies of investment and institutional changes.

Here it is highly appreciated that Rostow, not only rejected the sterile method of approach, aggregative analysis focusing merely on economic factors in dealing with modernization of backward economies, but also shifted the focus of modernization problem to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institution consisting of contents of economic system.

2. Formation of Institutional Framework

Rostow’s point of view has little difference with those of most western scholars, spoken for by Schumpeter, capitalism is the civilization of rationalism. If it were true we are to confront with the fact that modernization means just westernization. But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the accomplishment of modernization is possible through socialism which contains irrational elements in its community. And as seen in Japanese capitalism, modernization can be accomplished through landlord’s exploitation of farmers by semi-feudal land ownership, its lower level of corn wages, and exploitation of small scale enterprises based on feudal relationship. In this sense, the modernization of underdeveloped countries is rather the realization of a new form of industrialism than simple rationalization or westernization.

On human factor accelerating modernization, Rostow do not transcend the category of general interpretation in advanced societies. He insists in the first place that “the merchants” has been always present, seeing in modernization not only the removal of obstacles to enlarged markets and profits but also the high status denied him in the traditional society. And, secondly, that there have almost always been “intellectuals” who saw in modernization ways of increasing the dignity or value of human life. Lastly that “the soldier” often brought much more to the job than resentment of foreign domination and dreams of future national glory on foreign fields battle.

But in the early stage of modernization, unless a strong, capable and uncorrupted centralized government provide measures and institutions securing national interests, it is favorable for the merchant himself to remain as a comprador rather than to be an independent industrial bourgeois. And intellectuals do hardly bear a banner of modernization as far as it is possible to devour forbidden fruits as employed middle class, so that only a few intellectuals stand on the positive position to speak for national interests. As for the soldier, there has been corrupted military cliques under the government of Nationalist China and military cliques in Latin America whose profession is military coup d’e tat. Generally speaking, traders, merchants, brokers, bureaucrats and other employed middle class are most benefit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s of backward countries, and least contributable to the process.

Next, we will examine Rostow’s theory of the changes of economic institutions. The changes of economic institutions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of capital supply necessary to industrialization. According to him, loanable funds required to finance the take-off have come from two types of source: “from shifts in the control of income flows, including income-distribution changes and capital imports”; and “from the plough-back of profits in rapidly expanding particular sectors.” He said in brief that economic development has occurred as “a result of income shifts from those who will spend,(or lend) less productively to those who will spend(or lend)more productively.” In the first place, he pre-

sented two kinds of shifts of income flows: land reform, government fiscal measures(inflation etc.); the expansion of the supply of working capital and long-range financing by the extension of banks and capital market. Nextly, regarding to the plough-back of profits presented as another means of capital supply, he thinks it a necessary condition that “the existence of one or more rapidly growing sectors whose entrepreneurs (private or public) plough back into new capacity a very high proportion of profits.” He seeks one extremely important version of the plough-back process at foreign trade. And he assumes the effective demand for domestically manufactured consumers’ goods as one possible mechanism for inducing a high rate of plough-back into productive investment. Lastly, he presented capital imports as a final element in the supply of loanable funds.

Now then, can the so-called take-off be possibl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ose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and policy measures presented by Rostow?

First, in discussing land reform, he took historical examples in Japan and Czarist Russia where the substitution of government vouchers for the great landholders’ claims on the flow of rent payments led to a highly Smithian redistribution of income into the hands of those in the modern sector. But Germany’s land reform(1807)—Government issued ‘Rentenbrief’ through ‘Rentenbank’ made it exchanged with shares freely at a stock market—may be a better example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today. Because so far as the landholders’ claims were substituted by government vouchers landholders might be spend them unproductively, once they were payed someday, so that backward economies, struggling with excessive demand inflation and also apt to confront with foreign exchanges crisis accruing from the imports of consumption goods, come to meet severer inflation and foreign exchanges crisis.

Secondly, we come to meet the problem whether unproductive expenditures could be excluded only through banks and capital market. Then it is nearly common reality of underdeveloped countries lying in the pre-take-off stage that profits in lending-money, playing the exchanges, trade and real estate investment

are higher than those of bank deposit and industrial investment. Therefore here banks and stock markets cannot perform their normal roles, and lended funds are rather apt to flow into inventory speculation and playing exchanges than productive industrial investment.

In this sense, Rostow's view reversed cause and effect. The funds absorbed to banks would not be lended productively and the capital market not enlarged unless the expected profit rate of productive sectors is higher than that of unproductive sectors; however for such productive investment, it is a necessary condition that the control of income flows shifts from those who will spend less productively to those who will spend more productively. Here the so-called vicious circle of income flows exists.

There seems to be no way to tide over this vicious circle but fo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marketing channel. Government, on the one hand, assumes a part of foreign trade and wholesale of raw materials and manufactured goods by state marketing and collect excess profits of speculative sectors by imposing commodity tax, and, on the other hand, raises the rates of consumption duties and capital income tax. So far as the excess profits earned by various speculations and selling consumption services turns into government capital, the private idle capital would shift from unfavorable unproductive sectors to favorable productive sectors through the banks and capital market. And so far as the excess profits by speculations are impossible, most of all the usury will disappear.

Thirdly, how about the productive plough-back of profits? As far as this problem is concerned, Rostow is haunted in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of the nineteenth century. He presents, as conditions of the productive plough-back of profits, the followings: the existence of one or more substantial manufactures which have high profit-rate; expanded foreign trade able to import capital goods; and enlarged effective demand for domestically manufactured consumption goods. Here the one or more highly profitable manufactures, presented by him,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First, major export industries which does not

purpose to suffice the domestic demand, such as cotton-textile industry in England, silk industry in Japan, pulp industry in Sweden, and manufactured food industry in Denmark; Second, metal and machinery industries, and other basic chemical industries, stimulated by the railway construction and army reinforcement, as seen in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Canada and Russia, and besides, Japan, Communist China and other states who may, in a sense, fall under this category. Thus judging from two types of substantial manufactures for take-off, we may group the economic growth models in the take-off in two basic types; the extensive growth type (England, Denmark, Sweden, etc.), and the intensive growth type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Canada, Russia, etc.), and besides, a intermediate type (Japan, Switzerland, etc.).

But, here, we have to notice that advanced countries like England and a small group of nations who were endowed with the specific natural and human conditions, such as Sweden, Switzerland, and Denmark were able to undergo extensive industrialization from the beginning, under the initiative of export industries making the most of their international advantage, while most of underdeveloped countries had to shift on to the major export industries, in a new higher dimension, only after they achieved intensive industrialization centered on production-goods industries such as metal and machinery industries and basic chemical industries and etc.

We, therefore, may conclude as follows. While advanced economy is capable of growth by maintenance of the present state of static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he underdeveloped economy, without some specific conditions, had rather remove the static specialization and give priority to intensive industrialization; otherwise, no economic development may be expected at all. Although Rostow insists that one or more rapidly growing and highly profitable industries are necessary for the plough-back of profits but in the case of underdeveloped economy, they do not occur automatically by static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but rather have to be created by protective policies aiming at intensive industrialization.

Finally, let's turn to capital imports which Rostow enumerates as the final element in the supply of loanable funds. He asserts "foreign capital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take-off stage of many economies." But we may reasonably judge that they, indeed, played an important role only in those countries who took the initiative in concentrating funds upon intensive industrialization, while in other underdeveloped areas who were so servile to the interests of the advanced powers and accepted the funds without efforts to intensive industrialization, they only resulted in economic dependency upon advanced economies. Therefore, we may draw a conclusion that if foreign capital is to play "a major role" as Rostow says,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concerned, should be provided with subjectivity as well as long-sighted plan for intensive industrialization.

3. Strategies of Investment

As mentioned above, Rostow understood the modernization of underdeveloped countries as rather qualitative and structural changes than quantitative, and he asserted that nothing can be proved through aggregative analysis concerning this problem. Thus Rostow classified industries by economic functioning in the dynamic process instead of the method of industry classification, adopted by Clark and Hoffman, grasping the economic results by meaningless ex-post aggregate, and applied this to the strategies of investment for take-off. In this respect, h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ese strategic criteria, he classified the various industries of a country as follows: "Primary growth sectors, where possibilities for innovation or for the exploitation of newly profitable or hitherto unexplored resources yield a high growth-rate and set in motion expansionary forces elsewhere in the economy; Supplementary growth sectors, where rapid advance occurs in direct response to—or as a requirement of—advance in the primary growth sectors, where advance occurs in some fairly steady relation to the growth of total real income, population, industrial production or some other overall, modestly

increasing variable.” His method of industry classification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dynamic process of economic growth in underdeveloped areas as a strategic compass. That is to say, in the first, we may concentrate investment to the primary growth sector, next, enlarge the supplementary growth sector through the external economies out of the primary growth sector, and finally, induce to foster automatically derived growth sector stimulated by the increase of employment created by both sectors.

But, in spite of standing on the appropriate method to approach, Rostow committed a serious error: he did not describe the state of things prospectively but retrospectively, had a regard for the interests of advanced economies 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static state, and evaded consciously the interests surrounding the industrialization of underdeveloped countries. Industrialization of underdeveloped countries today does not imply the process of finding something new by the numerous patrols and inducing innovations, but the process of transplanting, imitating and adopting innovations created already by the advanced economies, so that, in the case of underdeveloped countries, primary growth sector should be the strategic industries selec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strategic industrial sectors are selected, not by the “high profit rates,” say, consideration of income and expenditure on present static state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but by the dynamic specialization seeking a new higher dimension of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economic framework necessary for casting off the present dependency. Therefore it can be said reasonable that the concept of Singer’s strategic industries are substituted for that of Rostow’s primary growth sectors. If private investments flow into the “high-profit” industries determined automatically by the functioning of price mechanism, such industries will not fulfil the role of so-called “strategic growth sectors,” that is, the ground of the take-off. As described above, advanced countries like England and a small group of nations endowed with the specific conditions, such as Sweden, Denmark, indeed achieved industrialization by enlarging Rostow’s “primary growth sectors.” But so-called

underdeveloped countries at that time are largely comprised in the intensive growth type which selected heavy industries connected to railway construction and armament as “major growth sectors.” Still more, inventions of synthetic raw materials and industrial diversification of advanced countries for removing dependency of raw materials on underdeveloped areas, compel underdeveloped countries of today to follow the intensive industrialization. All these make us confirm that the major growth sectors which underdeveloped countries select strategically must be kept in step with “the intensive growth types.”

Lastly, It is just valid that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and the extractive industries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growth. He describes, “the general requirement of the transition is to apply quick-yielding changes in productivity to the most accessible and naturally productive resources. Generally, this means higher productivity in food-production.” And he sought mainly the role of agriculture at “expanded food supply, expanded markets, and an expanded supply of loanable funds to the modern sector.” Among these, he presented the third as the most distinctive role of agriculture in the transitional period, that “surplus income derived from ownership of land must, somehow, be transferred out of the hands of those who would sterilize it in prodigal living into the hands of the productive men who will invest it in the modern sector and then regularly plough back their profits as output and productivity rise.” Though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must be emphasized still more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which is compelled to industrialize intensively, it is not so easy task as Rostow or Nurkse says, to mobilize bulky resources for industrialization from agricultural sector.

III. Conclusions

1) Rostow included comprehensively the individualities of the various historical phenomena instead of the unique generalization which was traditional common-methodology of modern economic historians, and thus found a clue to prove the principles of theory and policy of the modernization of underdeveloped countries, which may be different from one to another.

2) And it is also valid that the core of his theory lied rather in the nationalism than in the profit motive. But because he evaded consciously to distinguish the xenophobic nationalism in the countries with “born free” from the nationalism peculiar to colonial areas where economic development was seriously hindered by the coalition between colonial powers and native conservative powers, he committed a serious fallacy in dealing with the modernization, say, industrialization of underdeveloped countries.

3) His theory of institutional changes is no more than a retrospective description lacking prospective approach, accordingly it may be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past historical events, but cannot be a policy guide to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today.

4) Also his conceptual definition of “primary, supplementary and derived growth sector” and its possibilities of application as a strategic tools should be modified by a higher dimension of the intensive industrialization plan and the dynamic international-division of labour.

5) In conclusion, in spite of starting a reasonable methodology, Rostow’s distorted prejudice hindered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to fulfil the role of “*A Non-Communist Manifesto*.”